"양극화 해소 방안, 불공정거래 근절 우선"

중소제조업 45.4%가 응답, 체감 양극화문제 코로나19 확산 이전대비 43.8% ↑

중기중앙회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중기 근로자 처우개선 이어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21년 기준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상황 및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확산 이전 대비 각 53.4%, 43.8% 증가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금조달 능력차이(54%)',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순으로 응답했다.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으로 나타났다.

작년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 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 개선(45.4%)', '이익공유제 등 제도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순으로 응답했으며,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제도법제화보다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박경숙 전북농기원장 정읍농기센터 현장 방문

박경숙 전북농업기술원장이 지난 6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를 방문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읍 농업 현황과 주요 추진업무를 청취하고,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한 농작물의 수해와 병해충 피해의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용 미생물 배양실과 농산물가공센터 등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이후에는 영농현장 방문으로 정우면 스마트팜(아람농장)과 덕천면 및 채종단지를 방문해 포장 관리와 생육상황을 관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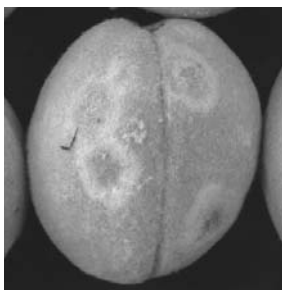
현장에서 박 원장은 스마트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맥류 고품질 재배 요령을 지도하고 각 작물의 생육 현황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을 살피는 등 현장 영농지도에 나섰다.

/정읍=김대환기자

스마트팜 사업개발 협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윤석진 원장을 만나 농촌의 중·소 영세농가,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등 농촌 현장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하고, 농산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왼쪽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 aT 김춘진 사장.)

봉지 씌우기 전 흰가루병 예방부터

복숭아 어린 과실에 발생 상품성 하락 막으려면 예방적 약제 방제해야



흰가루병 피해를 본 복숭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복숭아 어린 과실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이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봉지 씌우기 작업 이전에 철저한 예방을 지난 7일 당부했다. 복숭아 흰가루병은 주로 5월 초부터 어린 과실 표면에 흰색 버짐 형태로 나타나는데, 날이 건조하면 발생이 심해진다.

복숭아 흰가루병을 유발하는 곰팡이는 주로 찔레꽃에서 겨울을 났다가 5월 초부터 바람을 타고 복숭아 어린 과실로 이동한다. 흰가루병 감염 초기에는 열매 표면에 흰색의 작은 반점이 생긴다. 이후 병이 진전되면서 짙은 살구색 균사와 포자 덩어리가 형성되고, 이것이 주변으로 날아가 이차 감염을 일으킨다. 이때 감염된 열매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지를 씌우면 병이 진전해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갈라지는 등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2020년도 복숭아 병해 발생 상황 분석과 임상진단 결과, 흰가루병은 김제시와 임실군, 충북 음성군, 경북 상주시 등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았다.

흰가루병 피해를 줄여 품질 좋은 복숭아를 수확하려면 봉지 씌우기 전 적용 살균제를 뿌려 병원균 감염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했던 농가나 지역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봉지 씌우기 작업 중 발견된 흰가루병 감염 과실은 봉지에 담아 다른 열매에 옮지 못하도록 제거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준열 원예특작환경과장은 "고품질 복숭아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봉지 씌우기 전 흰가루병을 철저히 예방해야 하며, 5월 중순부터 발생하는 세균구멍병, 탄저병 등에 대해서도 예찰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제의 한 농가는 "이제까지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는 이 병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가 컸으나 앞으로는 봉지 씌우기 전 철저한 예방과 방제로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은, 효문여중 찾아 금융교육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올바른 경제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전주효문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주효문여자중학교 1학년 48명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이해, 푼돈으로 목돈 만들기, 신용 관리, 알뜰하고 똑똑하게 소비하는 방법, 보험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투자의 8가지 원칙, 부자 되기 위한 좋은 습관 적어보기 등을 진행했다.

이날 금융교육은 중학생 눈높이에 맞게 활동지를 활용한 이론 교육과 동영상 시청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정부혁신 청청FT 1차 모임 진행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는 적극행정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위한 '정부혁신 청청(廳廳)TF 1차 모임(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자발적, 파괴적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역량 강화 등의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조직문화 발전을 목표로 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회의를 통해 2030세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이 중 선정된 아이디어는 산림행정에 연계,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과감히 반영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늘려야

전주시-전건협 전북도회, 포스코건설 등 대형사 찾아 촉구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주시와 전건협 전북도회는 지난 6일 서신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건설 본사(인천 소재)와 한라건설 본사(서울 소재)를 방문해 지역 건설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설현장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 유상봉 건축과장은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인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사의 공사 참여가 절실하다"며, 전주시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 지역자재 이용 80%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와 시공기회가 반드시 부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포스코건설과 한라건설에서는 "지역 업체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하며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주시 하도급관리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침체된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전주시의 하도급 전담부서 활동이 전문건설업계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7일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전북농협, 학생건강 증진 '농산물 꾸러미' 지원

가정의 달 맞아 2000만원 상당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7일 전북도교육청을 찾아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승환 교육감,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박병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학생들에 대해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복지를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직원 성금' 기탁, '사랑의 농산물꾸러미 1,000박스' 전달 등 전라북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후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서한국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지난 6일 전주시 경원동에 소재한 (사)그린나래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랑나눔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김성두 전북도청지점장, 김종관 부지점장, (사)그린나래협회 김도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이 지역밀착 봉사활동을 통해 책임감 있는 시민기업의 역할수행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곳곳에 사랑의 손길과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며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19개 봉사팀 전 직원이 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사)그린나래협회에 전달된 후원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무료 반찬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연중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지역주민과 임업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성상용 관리소장은 지난 6일 국유림을 활용한 임업소득작물 재배와 귀산촌예정자를 대상으로 산림현장교육을 하고 있는 '무주반디팜'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홍보했다.

업체 대표는 "여성과 청년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산촌 모델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을 적용한 산림현장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볼거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성 소장은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유림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민연금, 가정의 달 맞아 사랑의 후원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에 참여해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4일과 6일 방임,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전주지회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을 각각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과 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공단은 매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물품후원, 공감여행, 안부전화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마음 잇는 사회봉사'를 통해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 총 3만8,348명에게 약 26억여원의 식료품과 주거안전용품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공감여행'을 제공하고, '사랑 잇는 안부전화'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김윤상 기자